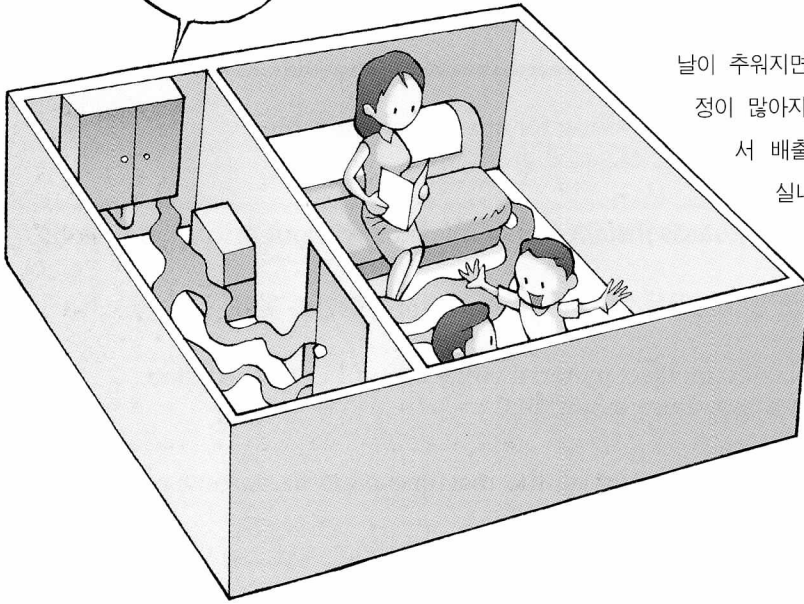


가정 보일러 안전

가스누출!



날이 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보일러를 가동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 가스보일러를 작동하면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가 섞인 배기가스가 실내로 역류하여 질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배기가스를 밖으로 빼주는 배기팬이 고장나거나 환기구가 막히는 등의 가스보일러의 노후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전기순간온수기가 얼었을 때 점화하거나 과열되었을 경우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보일러 안전사고 예방수칙 ■■■

- ▶ 사용 설명서에 나온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 ▶ 겨울에 전기순간온수기를 사용할 때에는 0℃ 이상의 온도에서만 사용하고 제품의 내부에 물이 얼었다고 판단될 때는 전원을 켜지 말아야 한다. 겨울에는 제품이 얼어서 파손될 수 있고 아무리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기 오작동으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 ▶ 전기순간온수기는 항상 기기 몸체 내에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실내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실외에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할 때 결빙 유무를 확인하고 전원 스위치를 ON/OFF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 전기순간온수기에 절수용 샤워기를 사용하거나 배관을 했다면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이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기 몸체에 과다한 수압이 가해져 폭발할 수 있다. 물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ON/OFF 하고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은 항상 열린 상태로 두어야 한다.
- ▶ 가정에서 가스보일러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환기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노후보일러의 경우 일산화탄소가 배기통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보일러 자체 내에서 새나올 수 있고 배기통이 부식되면 보일러 배기통에서도 새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점검하고 안전하게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